

시정당무인리활기인공프프르양신공로대합니... 임핑나이너스터컨트리클럽



김형성 시즌 2승

KPGA 몽베르오픈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사진)이 한국프로골프(KPGA) 상반기 마지막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했다.

김형성은 22일 경기도 포천시 몽베르골프장(파72·7천198야드)에서 열린 SBS코리아 투어 에이스저축은행 몽베르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함께 12언더파 276타로 2위 박도규(38·르코프골프)를 4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3위는 6언더파 282타를 친 허원경(22·삼화저축은행)이 차지했다.

김형성은 2006년 가을 한국프로골프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처음 우승한 이후 올해 토마토저축은행오픈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김형성은 이번에는 2개월여만에 다시 우승컵에 입을 맞추며 황인준(34·토마토저축은행)과 함께 다승 공동선두로 올라섰고 상급왕 레이스에서도 6천만원의 보낸 2억3천500만원으로 황인준(2억4천만원)에 500만원 뒤진 2위로 바짝 추격했다.

데이비드 오(27·토마토저축은행), 김형태(31·테일러메이드), 강경남(27·삼화저축은행)은 5언더파 283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편 KPGA 대회는 두 달 휴식기를 갖고 8월21일 연우해본랜드오픈으로 하반기 대회를 시작한다.

홍란 생애 첫 우승

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우승만 없었을 뿐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3년 동안 정상급으로 꼽혀온 홍란(22·민심웨어·사진)이 생애 첫 우승컵을 안았다.

홍란은 22일 부산 해운대골프장(파72·6천522야드)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3라운드 합계 3언더파 213타로 정상에 올랐다.

2위 그룹을 1타차로 따돌린 홍란은 프로 데뷔 이후 4년만에 '챔피언스 클럽'에 이름을 올려 진정한 강호로 거듭났다.

유소연(18·하이마트)이 3타 뒤진 공동 5위로 경기에 나선 홍란은 우승은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강한 비바람 속에 선두권 선수들이 줄줄이 무너진 덕에 앉아서 우승컵을 헌납받았다.

4오버파 76타를 친 유소연은 문수영, 윤채영(21) 등과 함께 1타차 공동 2위(2언더파 214타)에 만족해야 했고 2라운드 단독 2위에 이어 최종 라운드 초반에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도 했던 윤슬아는 5위(1언더파 215타)로 떨어졌다.

히딩크, 조국 네덜란드 울렸다

러시아 3-1 승

사상 첫 4강행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는 2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의 산크트 야콥파크에서 열린 2008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8강에서 연장 후반 7분 드미트리 토르빈스키의 결승골과 4분 뒤 터진 안드레이 아르샤빈의 썩기골로 네덜란드를 3-1로 꺾었다.

구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대회 준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조별리그에서 이탈리아(3-0 승), 프랑스(4-1 승) 등 2006 독일월드컵 우승·준우승국들을 대파하고 3전 전승으로 8강에 올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던 네덜란드는 '히딩크 마법'의 제물이 돼 1988년 이후 20년 만의 우승 탈환 꿈을 접었다.

러시아는 조별리그에서 두 골을 터트린 파블류첸코를 최전방에 세우고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퇴장으로 스웨덴과 본선 조별리그 3차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아르샤빈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배치한 4-4-2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네덜란드는 윙터 판 니스텔로이를 축으로 베슬러이스 네이더르와 디르크 카윗을 좌·우 윙포워드, 라파엘 판 데르파르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운 4-2-3-1 전형으로 나섰다. 이탈리아, 프랑스전과 같은 땀바구성이었다.

예상을 깨고 러시아가 초반부터 공세를 펼쳤다. 전반 31분 아르샤빈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슛을 날렸지만 골키퍼 판데르사르의 손을 스쳐 코너 아웃이 됐고, 1분 뒤 데니스 콜로딘이 아크 정면에서 때린 오른발 중거리슛도 판데르사르의 관망에 막혔다.

반격에 나선 네덜란드는 전반 37분 니스텔로이와 전반 44분 판데르파르트의 슈팅이 잇따라 골키퍼 이고르 아킨페예브의 선방에 걸렸다.

후반 시작하며 네덜란드 마르코 판 바스텐 감독은 전반 이렇다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카윗을 빼고 로빈 판 페르시를 투입했고, 후반 9분에는 블라루즈를 빼고 온 헤이팅어를 출전시켜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가 먼저 골문을 열었다. 후반 11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세르게이 셰마크가 올린 크로스를 파블류첸코가 골 지역 정면에서 논스톱 왼발슛으로 꽂아 넣었다.

러시아가 몇 차례 득점 찬스를 놓치더니 결국 후반 41분 네덜란드의 동점골이 터졌다.

스네이더르가 미드필드 왼쪽에서 프리킥을 차 올렸고 판 니스텔로이가 골문 앞으로 달려들며 헤딩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연장자로 몰고갔다.

연장에서도 러시아에 결정적 득점 찬스가 많았다. 하지만 골 운이 따르지 않았다.

연장 후반 7분 러 토르빈스키 골...2-1



연장 후반 11분 러 아르샤빈 골...3-1



연장 전반 7분 파블류첸코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때린 오른발슛은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다, 2분 뒤 아르샤빈의 패스에 이은 토르빈스키의 왼발슛은 골키퍼에 걸렸다.

하지만 결국 연장 후반 히딩크 감독의 마법이 그라운드를 휘감았다.

연장 후반 7분 아르샤빈이 상대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크로스를 올렸고, 토르빈스키가 골문으로 쇄도하며 재치

있게 왼발로 차 넣어 승부를 갈랐다.

러시아는 네덜란드 수비가 낮고 있던 연장 후반 11분 스로인 패스를 받은 아르샤빈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오른발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굴절된 뒤 골키퍼 판데르사르의 다리 사이로 빠져 들어가 4강행에 썩기를 박았다.

히딩크 감독은 경기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할 점은 있다. 파울이 많았고, 프리킥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이 너무 수동적이었다. 또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간 조화는 훌륭했지만 득점기회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면서 아쉬웠던 점을 잠시 털어 놓기도 했다. 경기가 열린 스위스 바젤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네덜란드인이었을 법한 히딩크 감독은 러시아 국민과도 승리의 감격을 함께 나눴다. 그는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비롯한 러시아 곳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그들이 무척 기뻐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팀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선수로서 대회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년 만에 지도자로서 다시 정상을 밟으려던 꿈이 깨진 마르코 판 바스텐(44)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은 "우리가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며 패배를 깨끗이 받아들였다.

히딩크 가슴 벅찬 소감

"기적 같은 승리였다 선수들 자랑스러워"

보다 나왔다. 거만하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앞섰다"고 완승을 자축했다. 1골 1도움으로 MVP에 선정된 안드레이 아르샤빈은 "네덜란드의 감독 한 명이 11명의 재능있는 네덜란드 선수들을 몰리쳤다"며 감독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했다.

지은희 "정상 보인다"

웨그먼스 LPGA 3R 2위

'미키마우스' 지은희(22·힐라코리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한국인 챔피언 탄생의 희망을 부풀렸다.

지은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버그 로카스트힐 골프장(파72·6천328야드)에서 열린 웨그먼스LPGA 3라운드에서 데일리베스트인 8언더파 64타를 뽑아냈다.

단독 선두인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에 3타 뒤진 2위(11언더파 205타)로 뛰어 오른 지은희는 투어 데뷔 2년째에 첫 우승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특히 지난해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에서 페테르센에 불과 1타 뒤져 우승컵을 내줬던 아픈 기억이 있는 지은희는 "이번에는 꼭 페테르센을 꺾고 우승하고 싶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1번홀(파4)에서 170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샷이 골장 홀에 빨려들어가는 행운의 이글로 기본종개 2라운드를 시작한 지은희는 보기없이 버디 6개를 보태는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1, 2라운드에서 4타씩을 줄이는 안정된 경기를 펼쳐 선두권을 달린 박민비(21)는 이날도 3언더파 69타를 쳐 지은희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2라운드 선두였던 모건 프레셀(미국)은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2위 그룹으로 뒷걸음을 걸었다.

지난 주 대회가 없는 틈을 타 한국을 찾아 아들과 상봉하고 돌아온 '엄마 골퍼' 한희원(30·힐라코리아)도 8언더파 64타의 맹타를 휘둘러 공동5위(9언더파 207타)로 수직 상승했다.

재미교포 티파니 조 우승

US 아마추어여자골프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하는 미국골프선수권대회 가운데 하나인 US여자 아마추어골프협회(UCLA)가 주최하는 '코리안 파티'로 치러진 끝에 재미교포 티파니 조(21)가 우승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 재학 중인 티파니 조는 22일(한국시간) 위스콘신주 에린의 에린힐스골프장(파73·6천158야드)에서 36홀 매치플레이로 펼쳐진 결승에서 한국 국가대표 출신 송민영(18)을 2홀차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2006년 한국계 김벌리 김을 결승에서 눌렀던 티파니 조는 이로써 이 대회를 두 번 이상 우승한 다섯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계로는 1988년과 1989년 우승한 재미교포 필 신(41)에 이어 두번째.

두 달 전 앞으로 숨진 롬메이트의 아버지에게 우승을 바친다고 밝힌 티파니 조는 "처음 우승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말했다. 티파니 조가 이끄는 UCLA의 라이벌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 입학할 예정인 송민영은 29번째 출전까지 2홀차로 앞섰지만 막판에 버티지 못해 아쉽게 역전패했다.

송민영은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경기 후반에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이 패인이 됐다"고 말했다. 송민영은 26일 개막하는 US여자 오픈에 출전한다.

나이지리아 최종 예선 진출

월드컵축구 아프리카 예선

'슈퍼킬스' 나이지리아가 거침없이 4연승을 거둬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축구 아프리카 최종예선에 진출했다.

나이지리아는 22일(한국시간) 아부자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2차예선 조별리그 4조 4차전 홈경기에서 적도 기니를 2-0으로 완파했다.

나이지리아는 이로써 2차예선에서 4연승으로 승점 12를 확보하며 2위 남아공(승점 4)에 크게 앞서 남은 2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조 1위로 최종예선 진출을 결정지었다. 2차예선 12개 조 1위 팀과 2위 8개 팀 등 총 20개 팀이 오는 아프리카 최종예선에서는 5개 조로 나누어 다시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풀리그를 벌이며 각 조 1위 팀이 월드컵 본선에 나간다.